

전북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돌입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비상방역
AI·구제역·ASF 맞춤형 차단방역
김제 산란계 밀집단지 집중 관리
멧돼지 등 ASF 위험요인 차단

전북도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FMD)·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일 밝혔다.

올겨울은 해의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와 중국·몽골의 구제역 SAT1형 발생, ASF의 새로운 전파 위험요인 등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동물위생시험소, 14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질병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새도래지와 농장 주변을 집중 소독하고, 축산차량 출입 통제와 3단계 소독체계(거점소독시설→농장 입구→축사 입구)를 운영한다. 특히 3년 연속 발생한 김제지역은 산란계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방역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사육밀도 조절과 출입차량·인력 관리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총력

전북도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축산시설 주변을 소독하는 방역차량. <사진=전북자치도>

강화한다. 또한 가금농가별 '1농장 1방역전담관'을 지정하고 고위험 농가의 검사주기를 단축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구제역(FMD)은 정부의 SAT1형 백신 비축·접종계획과 연계해 긴급 백신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취약농가 예방과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한다. 항체양성을 이 낮거나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점검과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하고 축산관계시설의 환경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야생멧돼지·혈장단백질 함유 사료·불법축산물 등 3대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위험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도축장 출하돼지와 혈액·환경시료 검사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방역교육을 통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겨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FMD)·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 도 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야생동물 접근 차단, 백신접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농지행정 실무역량 제고 도·시군·농어촌공사 연찬회



<사진=전북도>

농지법령·행정절차 변화 특강
농지전수조사 진행·후속조치 점검
우수사례 공유·현장 애로 논의

전북도는 지난 2일 변화하는 농지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지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 소셜캠퍼스 온 전북에서 '2026년 전북 농지업무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도와 시·군 농지업무 팀장 및 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대장·농지은행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농지 정책 방향과 실무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연찬회는 농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업무 실무 특강'과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농지 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소통'으로 진행됐다.

실무 특강에서는 농지대장 정비와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관리 등 주요 농지 업무를 중심으로 최근 개정·시행된 농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공유해 담당자들의 제도 이해와 실무 대응 역량을 높였다.

이어진 소통 시간에는 현재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과 후속조치 내용을 공유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한 현장 의견을 나눴다. 또한 농지 관리 우수사례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과 도·시군·한국농어촌공사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연찬회에서 수렴된 현장 건의사항과 우수사례를 향후 농지 관리 정책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연찬회는 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한자리에 모여 변화하는 농지제도를 함께 이해하고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실무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농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문화예술 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예술인 넘어 기술·기획 인력 확대
약 19만 5천명 새 산재보험 보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종사자들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



안호영 의원

상된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단기

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의 단계적 도입'을 임명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법이 시행되면 약 19만 5천 명이 새롭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산업종사자도 당연 적용 대상이 된다.

문화예술 현장에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미술가, 배우·가수·연주자·무용수뿐 아니라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음향·영상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도 함께 일하고 있다. 이들 역시 작업 중 추락하거나 장비를 옮기다 다치는 등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중심의

활동 특성 때문에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낮아 충분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일하는 사람 가운데, 기존에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로서 산재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예술인뿐 아니라 기존에 예술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기술·기획 인력 등으로도 보호 범위를 넓히며, 구체적인 적용 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정하고, 보수액 신고와 보험료 납부

체계를 마련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 규모와 종사자의 보수·재산·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양측 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7일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김영목기자

yes! 2026

cheese

임실N치즈축제

IMSIL N CHEESE FESTIVAL

10.08 (목) - 11 (일)

WWW.IMSILFESTIVAL.COM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관광공사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전북도, 재난안전기업 일본시장 진출 ‘교두보’

위기관리산업전서 한국관 운영
전북5개사 우수 기술·제품 선별
현지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 지원

전북도는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2026 RISCAN TOKYO(도쿄 위기관리산업전)’에 참가해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함께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참가는 행정안전부의 국내 재난 안전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RISCAN TOKYO’는 일본 최대 종합 위기관리 전시회로, 매년 2만여 명의 바이어와 참관객이 찾는 전시 행사로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도가 통합한국관 대표 지자체로 참여해 전북테크노파크와 통합한국관 조성 운영, 국내 참가기업 전시·홍보, 비즈니스 상담 및 IR, 참여기관 간 협력과 성과 관리 등을 총괄했다.

통합한국관에는 전북·부산·경남에서 각 5개사씩 총 15개 재난안전기업이 참

가했다. 전북에서는 ▲썬플드포우(이동식 섬유복합 차수제품) ▲이스켄(위터넷 질식소화포) ▲썬엘립(화재 대피 마스크) ▲썬디프리(디지털트윈 기반 사면관리 AI 시스템) ▲썬라지(질식소화덮개) 등 5개 기업이 참가해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일본시장에 선보였다.

도는 박람회 기간 비즈니스 상담장을 운영해 사전 매칭된 일본 현지 바이어와 참가기업 간 상담을 지원했으며, 1일에는 참가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현지 관계자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통합한국

관 IR 피칭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일본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에 참가해 현지 선도기업의 노하우와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등 참여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오택립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시장에 알리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국내 재난안전기업이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청 잔디광장, 도민 문화공간으로 개방

올해 공공예식·아나바다시범 운영
내년부터 도민 주도 행사 개방
파고라·벤치 등 휴게시설 확충

전북도가 도청 잔디광장을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고 도민이 직접 문화 행사를 여는 열린 공간으로 바꾼다.

도는 올해 공공예식, 어린이집 아나바다 행사 등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도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꾸리는 소규모 문화행사 무대로 잔디광장을 개방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전북도정이 지향하는 ‘도민이 주인인 열린 도청’의 일환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청을 개방하는 한편 간부회의 생중계와 열린 도지사실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넓혀왔다. 여기에 잔디광장을 일상의 휴식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해 도민이 도청을 더욱 편안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구상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청 잔디광장 개방의 첫 단계로 12월까지 관련 부서와 연계한 도민 참여형 행사를 시범 운영한다. 10일 ‘전북마이웨딩’ 도청광장 공공예식을 시작으로, 31일에는 은성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아나바다 행사가 이어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범 운영 기간 행사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피고 시설, 안전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내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부서 연계 행사에 더해 도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소규모 문화행사로 폭을 넓힐 예정이다. 돗자리 음악회와 가족 독서마당, 낭만 피크닉, 어린이 체험마당 등 도민 누구나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광장 주변에 파고라와 야외



전북도청 잔디광장 마이웨딩

<사진=전북도>

벤치 등 그늘쉼터를 조성하고, 민백과 피크닉 매트 등 편의용품도 갖춘다. 특히 광장 중앙부는 산책과 행사를 위한 개방 공간으로 남겨 두고, 주변부를 중심으로 휴게시설을 배치해 일상의 휴식과 문화행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잔디광장을 가족 여가와 도민 주도 문

화활동이 함께 쉼 쉬는 공간으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원택 도지사는 “도청 잔디광장은 도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직접 문화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농식품부, 농촌 영농폐기물 수수방관”

“클린농촌사업 근본적 대책 못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매년 농촌에 영농폐기물 약 30만 톤과 폐농약용기 8,500만 개가 쏟아져 나오며 토양·수질 오염과 산불 유발 등 심각한 농어촌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환경부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윤준병 의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발생한 영농폐기물은 총 89만 5,513톤, 영농폐농약용기는 2억 3,523만 823개에 달했다. 특히 폐농약용기는 2023년 7,382만개에서 2024년 8,576만개로 16.2% 증가했다.

수거되지 않은 영농폐기물은 불법 소

각되거나 농경지에 방치·매립돼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영농폐기물 관리가 폐기물 관리법상 환경부 소관이거나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책임을 미뤘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환경개선을 표방하며 2026년 올해부터 신규로 68억 4,800만 원(국비)을 투입해 시작한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사업(클린농촌만들기)’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

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국 56개 시·군에서 주민 중심의 ‘클린농촌단’(8월 기준 3,845명 참여)을 구성해 마을 안길 등 공공장소 쓰레기를 줍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작 현장에서 가장 큰 처리 난제를 겪고 있는 대규모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수거, 폐농약용기 회수를 제고, 영농폐기물 수거·보관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에는 기여하는 바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민주당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안, 靑 결정 지지”

靑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논란은 청문회에서 매듭지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것과 관련, “속고 끝에 내린 청와대 결정을 존중하며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회가 검증 책임을 다할 때로 이제 남은 판단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내정 이후 민주당내 강경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물론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김용민의원과 추미애 경지지사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9월 7일 제청 이후 후보자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자 대통령은 14일 재검증을 지시했고, 청와대는 보름 넘는 시간 의

혹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봤다”며 “우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성실하게 응답한 과정”이라고 청와대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어 “어제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 청와대 결정을 존중하며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중히 선택한 후보를 청문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막는다면 국회가 스스로 검증 권한을 내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를 향한 우려가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해소될 수 있게 하겠다”며 “수사·기소가 분리된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중수청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루빨리 수장을 포함한 완전한 지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논란은 청문회장에서 매듭짓고 검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힘 역시 정쟁이 아닌 검증의 자세로 임해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후속 신규 판로 ‘성과’

박람회 후속 거래 16건 2600만원
유기농 스타상품 대회서 3점 수상

전북도는 친환경유기농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공식품의 신규 판로를 확보하고, 실제 납품과 후속 거래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영)전북친환경연합사업단은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민국 친환경유기농대전’에 참가해 도내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공식품을 홍보하고 신규 거래처 발굴에 나섰다.

경기도 소재 현대그린푸드와 공드림 통합물품센터 등과 친환경농산물·유기농공식품 공급계약 2건을 체결했으며, 해외 수출 상담을 포함해 총 8건의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박람회에서 발굴한 거래처와의 계약

이 실제 납품과 후속 거래로 이어지면서 지난 9월까지 총 16건, 2,600여만 원의 거래가 성사됐다. 단순 전시·판매를 넘어 박람회 참가가 지속적인 판로 확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모닝팜, 큰바위식품 등 도내 27개 업체와 농가가 참여해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공식품 93개 품목을 선보였다.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와 시식행사도 진행했다.

도내 제품의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2026년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 상품 경진대회’에서 ▲점음 모닝팜의 ‘유기농 짜짜는 블루베리 아이리브’가 국무총리상 ▲김제 우리농촌살리기의 ‘유기농 우리밀국수’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부안 최동춘 농가의 ‘배’가 한국유기농업협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장정철 기자

윤 의원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체계와 동떨어진 단순 환경정화에 그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2026. 9. 10.(목) ~ 13.(일) | 장수읍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

9월 10일(목)

대학가요제 리턴즈

★ 샌드 페블즈 ★

★ 옥슨80 ★

9월 11일(금)

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김연자

손빈아

유니스

★ 배기성, 정윤영 ★

9월 12일(토)

민경훈

먼데이 키즈

★ 뮤즈그레인 ★

9월 13일(일)

박현빈

★ 오로라 ★

주최·주관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 물가 3.2% ↑… 체감물가 여전히 ‘팍팍’

경유21%·휘발유12.5%
채소 15.5%상승
서민 가계 부담 지속

전북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전월보다 둔화했지만 신선채소와 에너지, 기름값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도민들의 체감물가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21.01(2020년=100)로 전월

보다 0.4%,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각각 상승했다.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8월 3.7%에서 9월 3.2%로 0.5%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1~9월 누계 물가 상승률은 3.0%를 기록했다.

품목 성질별로 상품은 전월보다 1.0%, 전년 동월보다 3.3% 올랐다. 농축수산물물은 전월 대비 1.4%, 공업제품은 0.3% 각각 상승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는 한 달 새 6.4% 뛰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장바구니 물가에서는 채소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 1.9% 올랐으며 이 가운데 신선채

소가 무려 15.5% 급등했다. 신선어개는 0.6%, 신선과실은 7.8% 각각 하락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신선식품 전체는 1.1% 하락했다.

소비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3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7%, 전년 동월보다 3.0% 각각 상승했다. 식품은 전년보다 1.7%, 식품 이외 품목은 3.9% 올랐다.

유통비 부담도 컸다. 지출목적별로 교통비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유가 21.0%, 휘발유가 12.5% 각각 뛰었다. 주택·수도·전기·연료도 2.7%, 음식·숙박

은 2.8%, 교육은 3.7%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전월보다 0.2% 떨어졌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3.0% 상승했다. 특히 개인서비스가 1년 전보다 4.0% 올라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탁료 26.7%, 해장국 8.1%, 초등학교 학원비 6.0%, 중학생 학원비 5.1%, 구내식당 식사비 4.9% 등이 상승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에너지와 유통비, 외식·교육 등 가계의 일상적인 지출과 직결되는 품목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준호 기자

전북중기청, 지역 스마트제조 생태계 활성화 나서

기술공급도입기업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 전북중기청)은 지역 내 스마트 제조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조혁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일과 2일, 2일간 스마트공장 기술공급기업과 도입기업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정책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스마트공장 기술을 개발·공급하는 기업과 이를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도입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중심의 스마트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날인 1일에는 완주군에 위치한 기술공급기업으로서 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개발을 진행 중인 지음소프트(대표 남정훈)를 방문해 역량과 현황을 점검 및 솔루션 개발 및 현장 보급 과정에 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역량 기반의 공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인 2일에는 정읍시에 있는 스

마트공장 도입기업인 자동차용 전자부품 제조업체 아진전자부품(주)(대표 서중호)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확인하고 혁신 성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기술공급기업인 (주)정우하이테크와 ‘스마트제조기술기업 전북지역협의회’(협의회) 회장사인 (주)블루비즈(대표 김용현) 및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으며,

아진전자부품(주)에서 실제 운영 중인 솔루션의 적용 현황과 생산성 향상 등 실제적인 구축 성과를 확인하고 도입기업이 느끼는 실제 현장에서의 운용 상 어려움과 공급기업의 기술 지원 에

로 등 기술 공급과 현장 적용이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지역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상만 청장은 “지역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기업과 이를 통해 혁신을 이루는 도입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제조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수렴한 스마트공장 공급·도입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농진청, 녹두 논 재배 확산·기술 보급 박차

경북 예천군 녹두 재배
단지서 연시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1일 경북 예천군 지보면에서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예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녹두 논 재배 기계화 현장 연시회’를 열고, 재배 확산과 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논 재배 및 기계화에 적합한 녹두 신품종 ‘재흔’과 생산기술을 소개하고, 파종, 방제, 수확 작업 과정을 시연했다.

또한, 신품종의 우수성과 기계화 재배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녹두 신품종 ‘재흔’은 파종 후 줄기가 곧게 서서 자라는 ‘직립형 초형’으로 비바람으로 인한 쓰러짐에 강하다.

특히 꼬투리 터짐이 적고, 알곡 익는 시기가 같아 범용 콤팩인을 이용한 일시수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기존 보급종 ‘산포’ 품종보다 수확량

은 13% 많고, 수확시기도 약 9일 정도 빠르다.

이날 전시된 자동 조향장치를 이용한 정밀파종 기술은 기계를 운전하는 작업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직진 주행으로 경지이용률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아울러 ‘비산저감 공기 흡입형 노즐’이 부착된 무인기(드론)로 방제하는 작업을 시연하며 스마트 방제 기술을 입증했다.

농약 흘날림(비산)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을 낮출 수 있는 기술도 제시했다.

이어 범용 콤팩인을 이용한 녹두 수확작업을 선보이며 기존 수작업 대비 노동력 절감 효과를 공유했다.

수확 시간 단축으로 영농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계화 기술을 통한 농가 경영 효율화 가능성도 진단됐다.

이날 연시회를 지켜본 녹두 재배 농업인 김영균 대표(한국에코팜)는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논 타작물 이모작’ 사업을 통해 ‘재흔’ 품종을 처음 재배했지만,



농촌진흥청은 지난 1일 경북 예천군 지보면에서 ‘녹두 논 재배 기계화 현장 연시회’를 열고, 재배 확산과 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농진청>

기계화 재배에 유리해 내년에는 녹두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노형일 국장은 “쌀 적정 생산과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논에 벼 대신 심을 수 있는

식량작물 재배 기술과 기계화 적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현장에 확산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현장 보급 확산에 노력하겠”라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심사위 열기도 전에 대출부터… 수협 17곳 절차 위반

도이치사랑제일교회
관련자 126명 처분 대상

도이치오도월드 공동대출과 사랑제일교회 대출을 취급한 수협 회원조합 17곳에서 대출심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심사역 의견서를 사후 작성하는 등 여신심사 절차를 어진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관련자 126명이 징계·경고·주의 처분 대상에 오른 가운데 수협 자체감사에서는 일부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대출심사와 내부통제, 감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관련 답변에 따르면 도이치오도월드 관련 감사에서 15개 조합, 사랑제일교회 대출 감사에서

진해수협과 강원고성군수협 등 2개 조합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수협중앙회는 해당 17개 조합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관련자 126명에 대해 징계 14명, 경고 54명, 주의 58명의 처분을 요구했다.

도이치오도월드 관련 15개 조합에서는 모두 110명이 처분 대상에 올랐다. 징계 9명, 경고 43명, 주의 58명이다.

조합별로는 강구수협이 감봉 1개월 1명·경고 2명·주의 3명 등 6명, 서귀포수협 견책 3명, 서천서부수협 견책 3명·주의 1명 등 4명, 안면도수협 견책 2명·경고 5명·주의 2명 등 9명이다.

경기수협은 경고 5명·주의 5명 등 10명, 남해군수협은 경고 7명·주의 2명 등 9명, 당진수협은 경고 7명·주의 3명 등 10명, 마산수협은 경고 7명·주의 5명 등 12명이다.

또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은 경고 5

명·주의 7명 등 12명, 울진축반수협은 경고 5명·주의 3명 등 8명이다. 근해안강망수협 5명, 부산시수협 2명, 성산포수협 7명, 인천수협 5명, 패류살포양식수협 8명은 각각 주의 처분이 요구됐다.

이를 합산하면 15개 조합 110명으로 중앙회가 밝힌 처분 인원과 일치한다.

감사에서는 대출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심의 전에 작성해야 할 심사역 의견서를 심의 이후 작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대출모집 절차 미준수와 공동대출 참여기관 심사 소홀, 대출모집 수수료 비용 취급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사랑제일교회 대출에서는 진해수협과 강원고성군수협 등 2개 조합에서 16명이 처분됐다.

진해수협은 징계 3명·경고 5명 등 8명, 강원고성군수협은 징계 2명·경고 6

명 등 8명이다. 두 조합을 합하면 징계 5명·경고 11명 등 16명이다.

이들 조합에서는 상환력 등에 따른 대출한도를 확인하지 않거나 외부 감정평가서를 받기 전에 대출을 승인하는 등 부실한 심사가 확인됐다. 특히 강원고성군수협에서는 대출서류 임의 기재와 부적정한 문서 수정도 적발됐다.

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자체감사에서 일부 위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와 추가감사를 통해 위구사항을 확인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기본적인 심사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왜 이런 대출이 승인됐는지, 자체감사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 중소기업계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환영”

의료격차 해소 기대

전북지역 중소기업계가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추진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립의전원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는 물론 지역 중소기업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일 김병진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립의전원의 남원 설립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립의전원 설립이 전북 동부권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과 응급·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도 나타났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건설·설비·서비스 등 관련 분야



김병진 회장

의 사업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신규 일자리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 기관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순한 의료기관 설립에 그치지 않고 지역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병진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은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이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북 중소기업계도 성공적인 설립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익산시-원광대, 대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채용정보부터 현장면접까지

익산시가 원광대학교와 손잡고 지역 인재와 기업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연다.

익산시는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원광대학교 새세대광장 앞에서 ‘일자리다모아 성공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익산시와 고용노동부, 원광대학교, 익산 통합일자리센터가 협력해 청년과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채용기업관과 공공기관관, 취업컨설팅관 등 모두 60개 부스가 운영되며 원광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일반 구직자 등 3,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채용기업관에는 도내 우수기업 41개사가 참여해 기업과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공공기관관에는 한국전력과 국민연금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채용정보와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익산 통합일자리센터는 지역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역 기업의 박람회 참여와 채용 연계를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하림산업, 신평산업, 라이스밸류, 모션다이나믹스, 새뜰원광제약, 익산병원, 다사랑, 하다 등 9개 기업으로 생산직과 품질관리, 기계설계 엔지니어, 간호사, 영업 등 다양한 직무에서 총 8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지역의 우수 인재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취업 연계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 이후에도 익산 통합일자리센터를 통해 참여 구직자에 대한 상담과 기업 연계를 이어가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미 익산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청년과 구직자에게 다양한 기업을 만나고 현장면접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불 예방 성과 인정
농식품부 장관 표창 수상

정읍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 농업 현장의 부산물 소각을 줄여 산불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2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원단은 ‘2026년 봄철 산불방지 유공’ 표창 대상에 선정됐다. 농업인들이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운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표창은 지원단을 대표해 박헌우 정읍시농촌지도자연합회 사무국장이 받았다.

과수나무를 다듬고 남은 가지 등 영농 부산물은 농업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이를 태우는 과정에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정읍시 파쇄지원단은 농업 현장의 부산물을 파쇄기로 잘게 부수 농업인의 처리 부담을 덜고 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을 낮추는 활동을 해왔다.

지원단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297농가를 대상으로 97ha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을 파쇄했다. 시는 부산물을 태우는 대신 파쇄해 처리하는 방식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대, THE 세계대학평가 600위권 진입

산업·국제화 분야 상승 전인…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도약

전북대학교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의 '2027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651~700위권에 진입하며 전년(801~1,000위) 대비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지난 6월 발표된 '2027 QS 세계대학평가' 677위, '2026 THE 지속가능성 영향력 평가' 세계 49위에 이은 연속 상승세다.

지난 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 세계 2,297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환경, 연구품질, 산업, 국제화 등

5개 영역 17개 지표를 종합 분석했다. 전북대의 종합점수는 전년 37.8점에서 4.9점 상승한 42.7점을 기록했다.

순위 상승은 산업과 국제화 부문이 견인했다. 산업 분야는 전년 대비 20.9점 오른 90.3점으로 세계 213위에 올랐다.

특히 교수당 산업 소득 지표가 38.0점 오른 97.4점을 기록하고 특허 지표도 함께 개선됐다.

국제화 분야 역시 외국인 학생과 교원 비율, 국제공동논문 비율이 상승하며 전년보다 10.6점 오른 47.3점을 나타냈다.

교육(37.6점)과 연구환경(34.4점), 연구품질(48.3점) 등 5개 평가 영역도 일제히 올랐다.

특히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 수 지표는 25.1점 오른 80.3점을 기록해 연구생 산성을 입증했다.



양오봉 총장은 “교육과 연구의 내실을 다지고 산학협력과 국제화 역량을 결집한 결과”라며 “우수한 연구 성과가 지역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연구

<사진=전북대>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AI 공문서 분류 데이터 도구실 등 17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현장 성과를 이끈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7건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제18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교원·교육전문직원 5건, 5급 이하 지방공무원 5

건, 교육공무직원 5건, 기관(부서) 2건 등 총 17건의 우수사례를 확정했다.

심사 결과 부서 최우수는 전곡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공문서 자체 분류 모델을 구축한 본청 미래교육과가 차지했다.

개인 부문 최우수에는 △이우진 청원초 교사의 '감사 매뉴얼 업무 실천 전환(누락제로)' △박호용 정책기획과 주무관의 '교직원 업무경감 플랫폼(데이터 도구실)' △이정연 교양초 늘봄실무사

의 '3중 안심 락(카톡·도담반·CCTV)'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선발된 우수 직원과 부서에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등급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인사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흥열 감사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원광대-익산 지역사회 '탄소 다이어트 챌린지' 시동

원광대학교 지역혁신본부가 익산 지역 시민단체 및 환경교육기관과 연대해 10월 한 달간 일상 속 탄소 저감을 실천하는 '탄소 다이어트 챌린지'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원광대에 따르면 1일 교내 멀티미디어센터에서 원광대 지역혁신본부, 희망연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익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챌린지 출발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오늘부터 기후 시민 1일'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참가자들은 실천 다짐 선언과 함께 주차별 탄소 저감 과제 및 인증 방식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이달 말까지 생활 밀착형 탄소 저감 과제를 수행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천 기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동기 지역혁신본부장은 “대학의 자원과 지역사회의 실천력을 모아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캠퍼스와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 예술교육 대축제' 개최

6~8일 오케스트라 등 무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6일부터 8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도내 학생 6,700여 명이 참여하는 '2026 전북학교 예술교육 대축제'를 연다.

지난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도내 예술동아리와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112개교, 178개 팀이 참가한다.

참가 학생 4,300여 명과 관람 학생 2,400여 명 등 총 6,700여 명이 모여 배움을 나누고 '1학생 1예술'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로 꾸려진다.

행사 기간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과 연지홀, 명인홀, 야외무대에서는 관현악·국악 등 오케스트라 52개 팀과 록밴드·합창·뮤지컬 등 예술동아리 69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



천호성 교육감

공연과 전시, 체험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천호성 교육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갖고있는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소질을 키울 수 있도록 예술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군산시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군산CC 운영사인 군산레저산업과 군산문화관광재단, 군산시가 군산의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일 군산시청에서 군산레저산업, 군산시와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앞으로 신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시민과 관광객 참여 확대, 지역상생 사업 기획 등에 적극 협력한다. 군산레저산업은 군산CC 운영사로서

보유한 자원과 운영 역량을 활용해 지역과 연계한 협력사업에 참여한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기획과 운영을 추진하며, 군산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협력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군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기업과 행정, 재단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자간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의 가을, 8色 예술로 물든다

15~18일 예술제 열려 지역 예술인 8개 협회 참여

익산의 가을을 다채로운 예술로 물들이는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가 펼쳐진 다.

익산시는 오는 15~18일 익산예술의전당과 배산체육공원, 송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제58회 익산예술제'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천 년의 문화, 예술로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술제에는 한국예총 익산지회 소속 8개 협회가 참여한다. 문학과 미술, 사진, 국악, 연예, 무용,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 예술인들이 한 해 동안 준비한 작품과 무대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는 미술협회의 '제55회 회원전'이 열리고,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문인협회의 시화 작품 90점을 선보인다.

사진작가협회는 '2026 PASK Iksan Photo Festa 익산 사진대축제 및 제44회 익산전국사진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사진 작품을 관람객에게 소개한다.

공연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배산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국악협회의 '풍류'를 시작으로 제58회 익산예술제 개막식과 연예협회의 개막 축하공연 '힐링 콘서트'가 이어진다.

17일에는 무용협회의 '예인들이 춤을 펼치다'와 음악협회의 '음악이 있는 도시, 이야기가 있는 도시'가 무대에 오른다.

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연극협회의 '편지'가 관객들을 만나 나홀만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올해로 58회를 맞은 익산예술제는 지역 예술인들이 장르의 경계를 넘어 한 자리에 모이는 익산의 대표 종합예술제다. 시민들은 행사 기간 익산 곳곳의 문화공간을 오가며 전시부터 전통·대중예술, 공연까지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

이윤리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장은 “58회를 이어온 익산예술제는 지역 예술인들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창작의 결실을 시민들과 나누는 자리”라며 “문학부터 미술, 음악, 무용, 연극까지 다양한 장르를 만나며 익산 문화예술의 깊이와 매력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유네스코 등재 - 한국의 장돌리기 문화

List of Unesco - 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 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제 21 회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달다

순창장류축제

Sunchang Jangryu Festival 4일간

2026. 10.15 목 ~ 10.18 일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순창발효테마파크 일원

순창군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청정원 순창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시, 민선9기 취임 100일 타운홀

양충모 시장, 시민 100명과 토론

사전 참가자市 누리집서 모집

시정 질문·정책 제안 제한 없이

남원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시청 1층 강당에서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를 주제로 민선9기 취임 100일 남원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민선9기 시정의 핵심 가치인 '시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정 운영방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존 행사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시장과 함께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의견까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양충모 시장

‘무제한 열린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간략한 민선9기 시정방향 설명에 이어 시민 자유발언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민이 현장에

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시장과 관련 실·국·소장이 직접 답변하며,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해 처리계획을 시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시민 100명 가운데 50명을 사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남원시민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8일까지 사전 신청해야 하며, 이메일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사전접수에 참여하지 못한 시

민을 위해 행사 당일 현장접수 50명도 선착순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민선 9기가 지향하는 시민주권시대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정해진 답이나 형식 없이 남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시민께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취임 100일 타운홀 미팅을 시민과 행정이 직접 만나 정책과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고, 시민 의견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임금님 진상행렬’ 서울 도심 수놓다

덕수궁·광화문서 진상행렬 재현
장류축제 글로벌 인지도 확산

순창의 전통 장류문화가 서울 도심 한복판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순창군은 지난 2일 서울 덕수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순창장류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임금님 진상행렬’을 선보이며 수도권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축제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예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순창장류축제의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순창의 장류문화와 전통문화, K-푸드, 관광을 하나의 콘텐츠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홍보물 배포나 캠페인 방식에서 벗어나 순창장류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임금님 진상행렬’을 서울의 대표 역사문화공간에서 직접 재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렬에는 취타대와 기수단을 비롯해 사도행자, 호위무사, 진상품 운반단, 농악단 등이 참여해 대규모 전통행렬을 연출했다. 전통복식을 갖춰 입은



<사진=순창군>

참가자들과 장독지게, 붓집, 진상품 운반 소품 등이 어우러지면서 조선시대 임금에게 순창의 장을 진상하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현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문을 시작으로 차 없는 거리를 따라 원형분수대 방향까지 이동하며 취타와 농악이 어우러진 거리형 진상행렬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덕수궁 차 없는 거리에서는 순창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 500인분을 무료로 제공하는 K-푸드 시식행사도 진행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순창 장류의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화문과 월대를 배경으로 취타대와 기수단, 주요 배역, 진상품 운반단, 농악단이 길게 이어지는 장면을 연출해 사진과 영상 등 향후 국내외 축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에 도움을 쏟았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덕수궁과 광화문에서 행사를 진행해 순창장류축제가 국내 관광객을 넘어 세계인을 겨냥한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라는 의지를 보여줬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퀵스타트 일자리 매칭데이 ‘성과’

36명 현장면접…18명 최종 합격
아이씨엠씨·한국차체 채용 참여

완주군과 (사)전북산학융합원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일자리 매칭데이’를 열고, 현장 면접을 거쳐 최종 18명의 합격자를 선발했다.

전북산학융합원은 지역 투자기업의 실제 인력 수요에 맞춰 구직자를 적기에 발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쳐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까지 윈스톱으로 연계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지역 정착을 돕는

취지다. 이번 채용에는 ㈜아이씨엠씨와 한국차체㈜가 함께했다.

현장 면접에는 총 36명의 구직자가 응시해 최종 18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는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역량과 구직자의 선호도를 정밀하게 분석해 연결한 결과로, 공공 고용 서비스의 높은 효율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아이씨엠씨는 이번 채용에 이어 이달 중 추가 인력 채용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맞춰 완주군과 전북산학융합원은 기업의 추가 인력 수요에 대응해 구직자 발굴과 채용 지원을 아끼없이 이어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한국형 퀵스타

트 프로그램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를 있는 현장 중심의 고용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구직자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의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신규 투자기업에 숙련 인력을 공급하고 구직자의 취업 문턱을 낮춰주는 선순환 고용망을 구축해 기업의 투자자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 10개 마을 18억 지원

2027년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
주민 장제비 1인당 최대 164만원

남원시는 지난 2일 부시장실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과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기금 운용계획 및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과 기금결산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2027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총 운용금액 21억 9,235만원)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총 사업비 18억원)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관 분담금을 통해 총 21억 600만원을 조성했으며, 예탁금·예치금 및 이자수입 등을 포함해 2027년에는 총 21억 9,235만원 규모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 기금을 통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장제비(1인당 최대 164만원) 지원 사업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18억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하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

순창출신재학생 6~23일 접수
학기당 최대 200만원 지원

순창군과 (재)순창군육전장학회(이사장 최영일)는 지역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하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늘부터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에 시작되어 민선 9기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교육 복지 정책이다. 고졸 속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제공하고자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할 비용 중 식비 등 생활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

활지원금이 식비·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 완하는 물론, 지역 내 거주 유지와 순창군에 대한 소속감 및 애郷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대상은 공고일(9월 30일) 기준 만 40세 미만의 순창군 출신 대학 재학생으로, 관내 초·중·고 졸업여부에 따라 학기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재)순창군육전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흥부제, 선행인증·영수증 이벤트 운영

선행 인증 최대 5천원 업전 지급
관내 업소 영수증 제출 복권 제공

남원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34회 흥부제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선행인증 이벤트와 영수증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흥부제의 핵심 가치인 우애·나눔·보은·행운을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일상 속 선행을 축제 테마로 연결하고, 지역 상권 이용에 선물 당점의 즐거움을 더해 흥부제의 의미와 재미를 함께 전한다.

선행인증 이벤트는 축제에 앞서 흥부제 홈페이지(https://heungbu.org)에 접속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가 자신의 선행 실천 내용을 등록하면 AI 분석 등을 활용해 인증 내용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행사 전용 업전 1~5개를 지급한다. 총 1만 개의 업전을 지급하는 선착순 이벤트로, 지급 대상 수량이 소

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동일인의 중복 참여는 제한된다.

인증을 완료한 참여자는 축제 기간 행사장 내 업전교환소에서 인증 결과를 확인받고 실물 업전을 수령할 수 있다. 업전은 1개당 1,000원 상당으로, 축제장 내 지정 먹거리·농특산물 판매처와 체험 프로그램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총 1만 개의 업전을 지급하는 선착순 이벤트로, 지급 대상 수량이 소진되면 축제 개막 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동일인의 중복 참여는 제한된다.

지역 상권 이용에 행운을 더하는 영수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남원시 관내 업소에서 3만 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행사장 접수처에 제출하면 스크래치복권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선물을 제공한다. 두 이벤트는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11월까지 2개월간 집중 징수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안내

완주군이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완주군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별 체납 원인과 재산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차량 등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

로 추진한다.

또한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만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지방세를 지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제12회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축제 9일 개막

남원시가 주최하는 제12회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축제가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동편제 판소리의 발상지인 운봉 비전마을을 배경으로 판소리와 국악의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오늘날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국악 공연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무대는 전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선보이는 젊은 소리꾼들이 참여해 동편제의 깊은 소리와 현대적인 국악의 매력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첫날인 9일에는 2026 국립창극단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중인 소리꾼 엄경관을 중심으로 피리, 나발, 태평

소, 드럼 등 밴드 사운드의 향연으로 권마성, 꽃타령, 신뎃노래, 긴사랑가, 사랑가 등 전통 소리부터 대중가요까지 폭넓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10일에는 소리꾼 김우정이 무대를 꾸민다. 아홉 살에 판소리에 입문한 김우정은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춘향, 심청, 귀토 등 작품 주역으로 활약하는 등 탄탄한 실력과 잠재력을 인정 받은 소리꾼으로써 이번 무대에서는 ‘강산제 수궁가 중 토끼와 별주부의 여정’을 부를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12회째 맞이하는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는 동편제 창시자인 명창 송흥록 생가 앞 정자마루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지역 축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지리산 삼천리길

폐창고 생태관광 센터 ‘탈바꿈’

남원시는 지난 2일 지리산 생태관광의 새로운 거점이 될 ‘지리산 생태관광 삼천리길 방문자센터’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지리산 생태관광 삼천리길 방문자센터는 1976년에 지어졌던 미곡창고로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자칫 방치돼 버려질 수 있었던 폐건축물이 지리산의 자연을 알리는 새로운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준공식에는 남원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련 기관·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컷팅, 시설 관람 등의 순서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총사업비 11억여 원을 투입해 새롭게 문을 연 방문자센터는 연면적 441.98㎡(지상 2층) 규모에 탐방객을 위한 쉼터, 화장실, 사위실, 위게이션, 생태교육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삼천리길을 찾는 탐방객들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휴게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생태교육과 세미나가 이뤄지는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남원시는 향후 이곳을 거점으로 숲해설 동행 투어, 생태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특산물 판매와 생태탐상 등을 함께 선보이고 지역 주민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년 인연 찾기
‘커플로 완주해’ 2쌍 탄생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가 청년 만남 연계사업인 ‘커플로 완주해’ 1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종 두 쌍의 커플을 탄생시키며 뜻깊은 첫발을 뗐다.

‘커플로 완주해’는 일상에서 교류 기회가 부족한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지역 안에서 소중한 인연을 맺도록 돕는 소통·교류 지원 사업이다.

모집 초기부터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등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으며, 1기 행사에서 실제로 두 쌍의 커플이 맺어지는 가시적인 결실을 보였다.

센터는 1기의 높은 호응을 이어받아 2기와 3기 일정을 잇달아 추진한다. 2기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3기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완주군 일원에서 펼친다.

‘남만 가득한 완주, 10월의 밤공기를 따뜻하게 채울 인연’을 주제로 여는 3기 프로그램은 전국 만 19세부터 45세까지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는 1기의 성과를 발판 삼아 이어지는 기수에서도 청년들에게 기억에 남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정착과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하반기 친절행정
역량 강화 교육

순창군이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행정 실천을 위한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소통과 응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양지현 강사는 ‘호감 가는 공직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양한 민원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감성 소통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민원인의 요구를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부안향교 장학금 200만원 기탁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부안향교(전교 최관열)가 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며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안향교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교육기관으로, 전통 유교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인성교육과 도덕적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석전대제를 비롯한 전통 의례를 봉행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절·인성교육과 전통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며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와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으며, 배움과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겨온 향교의 전통은 오늘날 지역 인재육을 위한 나눔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관열 전교는 “향교가 오랜 세월 지역의 배움과 인성을 이야기해 온 만큼, 오늘날에도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힘이 되고 싶었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소중히 키워 훗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귀농귀촌인, 김제지평선축제서 비빔밥 500인분 나눔

김제시는 지난 1일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주관으로 ‘비빔밥 나눔’행사를 열고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과 농촌에서 쌓은 경험을 축제 방문객들과 나누며 농촌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채소 비빔밥 500인분을 방문객들에게 나누며 귀농귀촌인들의 정성을 전했다.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은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많은 분들과 나누며 김제의 농촌을 알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농촌의 매력과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전북·진안자원봉사센터, 진안서 환경보호 실천

6개 자원봉사단체 70명 참여
운산인공습지 환경정화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1일 진안군 운산인공습지 일원에서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실천프로젝트’를 개최하고 진안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한 생활 속 자원봉사 실천에 나섰다.

이번 실천프로젝트는 도민 참여형 생활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행정안전부 10대 자원봉사 테마 릴레이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이크로 자원봉사(Micro Volunteer)를 기반으로 환경보호와 자원봉사를 결합해 지역주민과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산탐사 붓다봉사단, 진안고원길, 진안군여성자원활동센터, 자연보호진안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 등 6개 단체 회원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발대식과 실천 선언을 시작으로 운산 인공습지 일원을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등 지역의 자연 과 실천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을 지키기 위한 군민의 작은 관심 /진안=전길빈 기자



수현사, 완주군 이서면에 이웃사랑 떡 기탁

전북혁신도시에 자리한 수현사(주지 원목 스님, 총동무회장 윤명순)가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따뜻한 자비행으로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수현사는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돕고자 쌀 40kg으로 손수 빚은 송편을 완주군 이서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지난 8월에도 이웃 돕기 고구마 20상자를 흔쾌히 내놓으며 온정을 나눈 데 이어, 변함없는 나눔을 거듭 실천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송편은 수현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빚은 것으로, 홀몸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해졌다.

원목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든든한 위로를 얻고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도들과 함께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와 온정을 지역사회 곳곳에 전하는 나눔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군지사협 '영화로 여는 문화나들이' 추진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문화 향유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화로 여는 문화나들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대상은 고창군 관내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총 210명으로, 읍·면별 15명씩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고창동리시네마에서 최신 상영작을 관람하며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문화생활을 즐기게 된다. 사업은 1일 4~5개 지역을 오전·오후로 나누어 운영하며, 각 읍·면에서 자체 차량을 이용해 영화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생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장수 결혼이주여성들, 직접 빵 굽고 배식 봉사

봉사로 소통하고 나눔 실천

장수군은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숙자)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장수군자원봉사센터와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제빵 및 배식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6년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단체 회원과 결혼이주여성이 함께 봉사하며 교류하고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함께 빵을 만들고 복지관 배식 봉사를 진행했으며, 정성껏 준비한 빵과 음료를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에서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로 참여하며, 복지의 선순환에 힘을 보태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남원 금동,노숙위기가구에 보급자리와온기 선물

남원시 금동행정복지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23일, 약 2개월간의 노숙 생활 끝에 보급자리를 마련했으나 생필품이 전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위기가구에 남원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과 협력해 온정을 베풀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가족 단절과 무소득 상태로 약 2개월간 노숙 생활을 하다 행정복지센터의 연계로 관내 다가구주택에 새 보급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냉장

고, 밥솥, 전자레인지 등 기본적인 가전과 식료품조차 없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금동행정복지센터는 공적 지원과 더불어 남원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과 적극 협력했다. ‘좋은이웃들’은 새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전기포트와 부식 및 양념류 등 긴급 생필품 일체를 전격 지원해 대상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 성산면,어르신 ‘찾아가는 안과검진’ 실시

군산시 성산면은 군산시 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 원광대학교 안과 전문 의료진과 함께 지난 2일 오성문화복지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과검진’을 실시했다.

검진팀은 시력검사를 비롯해 안압 및 안저검사, 현미경검사 등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눈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검진 결과에 따라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 등에 대한 치료 및 수술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굴절검사 결과에 맞춰 돋보기와 인공눈물, 항생제, 백내장 지연제 등 맞춤형 안약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검진과 더불어 연령과 무관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수술이 필요한 사업 안내를 병행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겼다.

/군산=지송길 기자



〈一事一言〉



17개 기관 뭉친 ‘전북형 ODA’ 껍데기 거버넌스 넘어 자체 예산 키워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전북대 중심으로 뭉친 확장 긍정적
국비 공모에만 매달려선 경쟁 불가

공적개발원조(ODA)가 단순한 인도적 구호를 넘어 지역 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전북대학교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를 거점으로 한 ‘전북지역 ODA 활성화 협의회’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캠틱 종합기술원 등 신규 기관을 맞이하며 총 17개 기관 규모로 외연을 확장했다. 대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손을 잡고 전북 특화형 국제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외연 확장의 성과에 도취하기엔 타 광역시도와 비교한 전북자치도의 ODA 체급과 성과는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다. 타 지자체들이 명확한 정체성과 탄탄한 자체 재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과시하는 동안, 전북은 여전히 ‘정부 공모사업 수주’라는 편편일물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 광역단체의 ODA 성과를 들여다보면 그 격차는 더욱 명확해진다. 경상북도는 단일 지자체 중 독자적인 ODA 예산 1위를 자랑하며 ‘새마을 ODA’라는 강력한 단일 브랜드를 구축해 아시아·아프리카 20여 개국에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해외 봉사단을 직접 파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정부 등 대도시 행정 소프트웨어를 개도국에 이식하는 ‘도시행정 ODA’로 글로벌 거점 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자체 기금과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의료진 초청 연수와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결합한 다각화된 ODA 모델을 가동 중이다.

반면 전북의 성과는 어떠한가. 전북은 농생명·스마트팜 자원과 LX의 공간정보 기술 등 훌륭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자체 예산 투입이 극히 미미하다. 결국 KOICA(한국국제협력단)나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에 응모해 예산을 따오는 ‘위탁 수행형 ODA’에 머물러 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판을 깔고 도내 기업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매년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리는 아슬아슬한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 ODA의 한계와 과제.

첫째, 지자체 자체 ODA 예산의 획기적 증액이 시급하다.

아무리 17개 기관이 모여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한들, 전북자치도가 투입하는 자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빈껍데기 협의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국비 공모에만 목을 매는 구조에서는 전북만의 장기적이고 독자적인 글로벌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 도 차원의 ODA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 독자적인 기금과 예산을 편성해, 중앙 정책 기조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전북형 독자 브랜드 사업’을 키워내야 한다.

둘째, ‘봉사형 ODA’를 넘어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이끄는 ‘비즈니스 연계형 ODA’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개도국에 선의를 베푸는 단순 구호 사업만으로는 지역 경제에 돌아오는 실익이 적다. 전북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팜, 농기계, 친환경 소재, 공간정보 기술을 ODA 사업과 직접 결합해야 한다. 개도국 현지에서 전북의 기술과 장비를 이식하고, 이를 거점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연스럽게 해당 국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 수출형 판로 개척’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셋째, 17개 참여 기관 간의 실질적 융합과 민간 주도성 강화다.

협의회 세 불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LX의 공간정보, 캠틱의 R&D, 전북대의 인재 양성 역량이 실제 하나의 융합형 프로젝트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중심의 관제 흐름에서 벗어나, 도내 민간 기업과 NGO가 ODA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컨설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ODA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이자 미래 산업의 수출 교두보다. 전북자치도는 17개 기관이 모였다는 외형적 세 과시를 넘어, 이제는 스스로 주머니를 열고 실질적인 ODA 생태계를 기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비에 의존하는 ODA 변방’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을 세계로 연결하는 ODA 선도 도시’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사 설

국립의전원 확정. 이제 ‘완전체’를 만들어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남원 설립이 마침내 확정됐다. 2018년 정부가 남원 설립 방침을 밝힌 이후 무려 8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들어선다는 것은 남원만의 경사가 아니라 전북 의료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남원의료원 인근에 입학정원 100명 규모의 4년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교육·실습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전북이 요구해 온 국립의전원의 실질적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소재지 확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무엇보다 국립의전원이 이름만 남원에 둔 채 핵심 교육과 임상·수련 기능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사를 제대로 양성하려면 강의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한

환자와 의료진, 진료과목을 갖춘 교육병원과 체계적인 임상실습 및 수련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립의전원 본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임상·수련이 하나로 이어지는 완결된 공공의료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수진 확보와 병원 시설 확충, 전공의 수련체계,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배치와 경력관리까지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8년을 기다린 남원과 전북의 염원이 이제 첫 관문을 넘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2029년 개교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법적·재정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국립의전원이 지역에 간판만 둔 학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남원에 교육과 임상, 수련 기능을 온전히 갖춘 ‘완전체 국립의전원’을 만드는 것, 그것이 8년의 기다림을 진정된 결실로 완성하는 길이다.

▲오늘의시

친구 / 문정희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누가 몰랐으랴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끼리도
끝까지 함께 갈 순 없다는 것을...
진실로 슬픈 것은 그게 아니었지
언젠가 이 손이 낙엽이 되고
산이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언젠가가
너무 빨리 온다는 사실이지
미처 숨들릴 틈도 없이
온몸으로 사랑할 겨를도 없이
어느 하루
잠시 잊었던 친구처럼
홀연 다가와
투옥 어깨를 친다는 사실이지

ㅣ 독자투고 ㅣ

호기심은 한순간, 선택의 대가는 ‘평생’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은 더 이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던,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과 SNS를 통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마약류 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청소년 역시 그 유혹과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아진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 중에서도 특히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바라보는 ‘경계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다가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SNS와 인터넷을 통

해 마약과 관련된 정보에 쉽게 노출되면서 마약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이를 넘어서 청소년기에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시도하거나 담력을 시험해보는 장치가 되는 경우에게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마약이 단순히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일반적인 일탈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약물의 종류와 개인의 신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마약은 강한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인 사용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이나 친구들의 권유였을 수도 있고, SNS에서 접한 자극적인 콘텐츠가 계기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약물에 대한 의존이나 금단증상이 시작되면 처음의 호기심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다가

온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 는 여러 신체적·심리적 문제로 인해 일상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이 다이어트약이나 그 밖에 청소년이 흥미를 가진 소재로 둔갑해 온라인 공간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서와 판단 능력도 성장하는 과정이다. 위와 같이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마약에 속거나 잠깐의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

호기심은 한순간일 수 있지만, 그 선택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은 결코 한순간이 아니다. 학생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약을 권유받는 순간 확실하게 뿌리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거절 한 번이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다.

전주덕진경찰서 경무계
경사 김시원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여대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매’, ‘짚레’, ‘하늘보다 먼 곳에 매인 그네’, 수필집 ‘지상에 머무는 동안’ 등을 출간했다.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했다. ‘공초문학상’ ‘이용악문학상’ ‘목월문학상’ ‘월간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국립한국문학관 관장과 제40대 한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별관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인쇄인 김은주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영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천지사-010-5242-369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산불은 한순간, 예방은 당신의 손끝에서

작은 실천:
불씨는 꼭 끄고,
담뱃불은 주머니에

당신의 숲을 지킵니다

작은 실수:
던진 불씨 하나,
모든 것을 태웁니다

당신의 미래를 잃습니다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신속한 신고, 피해를 줄입니다. 산불 신고 119

강경남 정읍경찰서장 “약속을 실천으로”

시민 곁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변화 만든 100일

지난 6월 8일 제77대 정읍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강경남 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강 서장은 취임 당시 “경찰의 출발점은 언제나 시민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강 서장은 말에 그치지 않고 시민 생활 현장 곳곳을 직접 살피며 예방중심 치안활동을 이어왔다. 어르신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부터 농촌지역 주민, 청소년, 사회적 약자에 이르기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을 펼치는 한편 재난·사고 현장 대응과 범죄예방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 “시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 눈높이 맞춤형 예방치안

강경남 서장은 취임사에서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 농촌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요소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여름철 피서지 범죄예방활동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가는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과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등을 알리고 피서객에게는 휴대품 도난과 불법 촬영, 기초질서 준수 등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예방활동을 펼쳤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안전활동도 강화했다. ‘착!한운전!’ 범시민 운동을 통해 방향지시등·안전띠·안전모 등 생활 속 안전수칙을 알리고, 경로당과 복지관을 직접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했다.

주민들이 보다 쉽고 친근하게 범죄예방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도 달리했다.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육종완 밴드와 함께 피싱사기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해 주요 피싱사기 수법과 예방요령을 알리는 등 지역 특성과 주민 눈높이를 반영한 홍보활동으로 예방치안을 한층 강화했다.

▲ 행동으로 보여주는 ‘현장 중심 치안’

강 서장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현장이다. “눈에 보이는 순찰, 즉시 대응하는 현장 활동”이라는 취임사의

치안 방향에 따라 모든 역량을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현장에 집중했다.

범죄예방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치안 불안 요소와 환경개선 필요지역을 찾아내고, 이를 CCTV·가로등·보안등 등 범죄예방 인프라 개선으로 연결했다.

농촌지하차도 통학로에는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하고, 남초등학교 주변 노후 담장과 보안등을 정비하는 한편 여성안심귀갓길과 취약지역에는 도로표지·로고젝터, CCTV를 확충하는 등 지자체와 협업한 맞춤형 CPTED 사업을 추진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국도 역주행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약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역주행 감지 알람장치 점검과 발광형 교통표지판 정비, 노면색갈유도선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했다.

재난과 사고에도 한발 앞서 현장으로 향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개소와 지역대표 축제인 불빛축제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살피는 예방중심 치안을 실천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학교 주변상가와 골목길, 청소년 밀집지역을 직접 누비며 우범지역 순찰과 유해업소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 출입시간 및 비행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업주들에게 청소년 보호법 준수 홍보물을 직접 전달하는 등 학교와 거리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 공정한 법 집행, ‘실력과 책임’으로 신뢰받는 경찰

강 서장을 취임사를 통해 “말이 아닌 실력에서 나오는 신뢰”를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기본은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음주운전과 이륜차 불법행위 등 사고요인 행위에 대한 주·야간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버스·택시·개인형이동장치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범규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정리를 병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수사분야에서도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각 분야에서 신속한 사건 해결과 높은 수사 완성도를 보여준 수사관을 ‘굿(Good)수사관’으로 선발·격려해

미니 인터뷰 / 강경남 정읍경찰서장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강경남 서장을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기보다 시민이 실제 생활속에서 안전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 서장은 “취임 당시 약속드렸던 것처럼 눈앞의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고, 정읍경찰 전 구성원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실력과 책임으로 신뢰받고, 인권과 절차를 지키며,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경찰.

강경남 서장의 취임 100일은 ‘약속’의 말에 그치지 않고 정읍의 치안 현장에서 하나씩 실천으로 옮겨온 100일이었다.



책임수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장과 함께하는 수사토론회’를 운영했다. 실제 수사사례와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서장이 직접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품질 향상에 힘썼으며 논의된 의견은 향후 수사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인권과 절차”를 최우선으로, 청렴하고 책임 있는 조직문화 정착

강경남 서장은 “경찰권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모든 경찰활동은 법과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인권과 청렴의 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분청 중앙 및 동편 계단에 ‘인권·청렴 실천계단’을 조성하고, 직원 대상 인권·청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문구를 게시해 직원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인권 존중과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인권 중심의 현장관리를 강화했다. 대화경찰을 적극 투입해 갈등과 충돌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조성에 힘썼다.

이는 법 집행을 엄정함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다.

▲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성장하는

정읍경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취임사의 의미처럼 조직 내부의 소통과 지역사회와의 협연도 강화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전북 최초로 112비상대응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현장의 안전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정읍시·정읍교육지원청·정읍우체국·정읍시 학원 연합회 등과 함께 ‘어린이 안전망 치안파트너스’ 실무간담회를 개최해 어린이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다졌다.

지역 치안의 든든한 동반자인 자율방범대와 협력도 강화했다. 경찰서와 자율방범대 간 유기적인 출동·순찰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치안수요에 따른 합동순찰과 긴급상황 대응 등 현장 중심의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자랑스러운 정읍경찰’을 선정해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였다.

부서를 직접 찾아가는 소통과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을 위한 ‘119노가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 격의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도 힘썼다.

/정읍=김정인 기자

